	보도자료	배포일자	11.25.(수)	매수	2매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공공의료본부 공공의료사업팀	실 장	한은주	☎	054-530-3042
		담 당	김진이		054-530-3029

상주적십자병원 부설 장수대학, 제26기 졸업식 개최

26년간 1,859명의 졸업생 배출,
상주지역 대표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상주적십자병원 부설 장수대학 제26기 졸업식 단체사진



상주적십자병원 부설 장수대학 제26기 졸업생들이 졸업장을 들고 기념촬영

상주적십자병원(김혁수 병원장)은 6층 강당에서 배움에 대한 열정과 도전으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 온 제26기 졸업생과 가족, 지인이 참석한 가운데 영예로운 졸업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주적십자병원 부설 장수대학은 2000년 개교한 이래 2001년에 제1기 교육생 100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26년간 총 1,85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상주지역을 대표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졸업생의 평균 연령은 74세이며, 최고령자는 82세이다. 나이를 넘어 배움에 대한 열정과 새로운 도전을 이어온 졸업생들의 모습은 평생학습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있다.
올해 장수대학은 '젊은 세대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노인상 정립'과 '행복한 여생 준비 및 활력 넘치는 인생 설계'를 교육 목표로 연간 총 25주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교육과정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병원 의료진 특강 2회와 전문 강사 초청 특강 10회를 비롯해 시니어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12차시 과정을 진행했으며, 졸업생들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쌓고 건강한 신체와 활기찬 마음을 가꾸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돌아보고,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며,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존경받는 노년의 삶을 만들어 가는 데 의미를 더했다.

장수대학 정영주 학장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처럼, 졸업생 여러분의 끊임없는 도전과 배움에 대한 열정이 무엇보다 값지고 아름답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적십자병원 부설 장수대학은 지난 2000년 개교 이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평생학습,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